

# 조선 후기 가사에서 타자로서 서양의 재현 양상과 근대성의 관계\*

이도흠\*\*

---

## 차례

---

1. 머리말
  2. 이론의 바탕 - 타자의 네 범주
  3. 가사에 재현된 동일성의 대립자로서 타자
  4. 가사에 재현된 자아의 이상으로서 타자
  5. 가사에 재현된 대대적 자아로서 타자
  6. 가사에 재현된 낯선 남으로서 타자
  7. 타자의 네 양상과 근대성과 관계
  8. 맺음말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조선조 후기에 조선 사회가 서양이라는 타자를 만나 이를 가사로 재현한 양상과 근대성의 관계에 대해 연구했다. 타자를 동일성의 대립자, 자아의 이상, 대대적(待對的) 자아, 낯선 남으로 범주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가사 텍스트를 찾아 분석한 후에 양자를 종합하였다.

<병인연행가>의 인용문처럼 조선 문화와 이데올로기 등으로 동일성을 확보하고 서양을 동일성의 대립자로서 간주할 경우, 이에 대해 조선인은 공포, 불안,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된다. 서양을 동일성의 대립자로 재현한 담론을 수용하는 조선인들은 자기긍정의 입장에서 조선의 문화와 사상, 이데올로기를 준수하고 타자를 부정하여 서양의 문화, 사상,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는 배척을 하거나 폭력을 행하려 한다. 이들은 서양문화와 서구적 근대화에 대해 쇠국적 자세를 견지하였다.

---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9년도).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서유견문록〉의 인용문처럼 서양을 자아의 이상으로 간주할 경우, 이에 대해 조선인은 동경과 선망의 감정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서양을 자아의 이상으로 재현한 담론을 수용하는 조선인들은 자기를 부정하고 타자를 지향하여 그를 모방하고 존경하여 타자를 자기화하려 한다. 이들은 유럽중심주의에 빠져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선을 개화시키려 하였다. 더 나아가 그 중 일부는 서양을 일본으로 대체하였으며, 이는 친일과 매관매위를 근대화와 동일화하는 데로 나아갔다.

〈해유가〉의 인용문처럼 서양을 자기 안에 품어 대대적 자아로 간주할 경우, 이에 대해 조선인은 반성의 감정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서양을 대대적 자아로 재현한 담론을 수용하는 조선인들은 자기를 긍정하는 동시에 부정하고 타자를 품어 연대하거나 자신을 성찰하며 주체를 형성한다. 이들은 서양의 문물을 성찰적으로 수용하였다.

〈무자서행록〉의 인용문처럼 서양을 낯선 남으로 여길 경우, 이에 대해 조선인은 처음에는 이질감을 갖고 거리두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더 만남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호기심과 다가가기로 변화한다. 이렇게 서양을 낯선 남으로 재현한 담론을 수용하는 조선인들은 처음에는 자기방어의 자세를 취하여 타자를 경계하였지만, 접촉이 이어질 경우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갔다. 접촉이 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는 주체와 타자와 관계에 따라 동일성의 대립자로서 자아, 자아의 이상, 대대적 자아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주제어: 근대성, 차이의 근대성, 타자, 병인연행가, 서유견문록, 해유가, 무자서행록

## 1. 머리말

조선은 오랜 동안 중국의 천하관, 책봉체제, 조공을 매개로 한 무역체제, 유교 이념과 한자/문화를 공통으로 한 중화(中華)의 질서 속에 있었다. 이 안에서 소중화를 자처하며 중국에 사대를 하는 한편,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타자화하였다. 조선 안에서 다른 집단, 마을, 문중, 신분의 사람들을 타자로 만날 때가 있었지만, 이는 지극히 우연적이고 개인적이고 찰나적인 것이었다. 그러다가 조선은 16세기 이후 동아시아 질서 바깥의 서양인과 문물을 만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동안 천여 년 이상 견고하게 유지되던 중세

질서에 대한 충격적이고 균열이었기에 탈중세적이었으며, 이 흐름 가운데 반성적 성찰과 모색은 근대성으로 연결되었다.

필자는 자생적 근대성론과 식민지 근대성론 모두 서구의 근대성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문제 등 동일성의 오류를 범하였고 탈식민지론적 인식이 없었다고 간주하며, 이의 대안으로 ‘차이의 근대성’의 입장에서 분석한다.<sup>1)</sup> “한국에서 얼굴이 하얗다고 자랑하던 학생이 유럽으로 유학을 가면 자신의 얼굴이 노란색임을 절감하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거울을 보고 그 역(逆)도 성립하는 데서 잘 나타나듯, 조선과 서양은 서로 거울이자 타자였다. 직접이든 일본을 통해서든, 조선은 서양을 만나고 나서 아시아인/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반성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조선은 서양을 만나 이중의 수행을 하였다. 서양을 만나기 전에 탈중세적인 경향들이 나타났지만, 조선은 본격적으로 서구화/일본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저항하였다. 자본제, 과학기술과 문물, 민주주의, 정치 및 사회제도, 근대 학문과 교육, 위생체제를 수용하여 유럽식/일본식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서양/일본에 저항하여 이의 타자로서 서양/일본에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조선적인 것’을 구성하고 ‘전통’을 창출하였다.”<sup>2)</sup>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서구적 근대화를 추구하기 이전에 조선은 서양이라는 타자를 만나 어떻게 반응하였고 이를 어떻게 재현하였으며, 이는 근대성과 어떤 상관을 갖는가. 먼저 타자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문학으로 재현된 양상을 살피면서 근대성과 연관하여 해석한다. 단, 지면관계상 조선조 후기 가사로 한정한다. 18-19세기에 창작되고 향유된 가사를 위주로 하

1) 이에 대해서는 이도흠, 「근대성 논의에서 패러다임과 방법론의 혁신 문제 - 식민지근대화론과 내재적 근대화론을 넘어 차이(差異)와 이종(異種)의 근대성으로」, 『국어국문학』 제153집(국어국문학회, 2009), 253~285면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였으며, 『18-19세기 한국문학, 차이의 근대성』이라는 제명으로 원고를 집필하여 탈고하고 곧 출간할 책에서 좀더 상세하고 정밀하게 논할 것이다.

2) 이도흠, 「동아시아 문학,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법론」, 『비교문학』 제77집(한국비교문학회, 2019), 98~99면을 요약하여 인용하며 ‘아시아’를 ‘조선’으로, 유럽을 ‘유럽/일본’으로 바꾸며 약간 수정함.

되, 1910년 일제 강점기 이전에 창작된 작품은 포함한다. 대한제국이 엄연히 1897년에 수립되었지만, 대한제국이 최소한 문화와 예술의 면에서는 조선조의 연장이었으며, 텍스트 또한 조선조의 이데올로기와 세계관, 문화양식에 따라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 2. 이론의 바탕 - 타자의 네 범주

타자는 누구인가. 홀로 밤길을 걸을 때 불현듯 들려오는 발소리이기도 하고, 마르고 닳도록 닳고 싶은 이상이기도 하며, 마치 내 병과 상처처럼 고통을 주기에 힘들지라도 손을 내밀어 잡고 싶은 자이기도 하며, 너무나도 낯설어서 망망대해와 같은 거리감을 주는 남이기도 하다. 필자는 라캉, 데리다, 들뢰즈, 레비나스 등 타자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되, 여기에 불교와 필자 나름의 생각을 보태어, '동일성의 대립자로서 타자', '자아의 이상으로서 타자', '대대적 자아로서 타자', '낯선 남으로서 타자' 등 네 가지로 범주화한다.

'동일성의 대립자로서 타자'는 집단학살에서 가장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인간이 행하는 폭력 가운데 가장 사악한 것이 집단학살인데, 왜 교양과 상식, 이성을 가장 잘 갖추고 보통교육이 실시된 20세기에 집단학살이 끊임 없이 자행되었는가?"<sup>3)</sup> 이에 대해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이히만의 재판관을 보고서 시민사회가 붕괴 되고 합리적인 비판이 허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인격도 파괴된 전체주의 사회의 맥락에서 평범한 이들도 '순전한 생각 없음(sheer thoughtlessness)'의 상태에 빠져 악을 범할 수 있다며,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을 주장하였다.<sup>4)</sup> 스텔리 밀그램은 이를 계승

3) 이도흠, 「동아시아 문학에서 타자의 재현과 타자성의 구현」, 『한국언어문화』 제73집(한국언어문화학회, 2020), 221면.

4) 한나 아렌트, 김선옥 옮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한길사, 2006), 380~381면.

하여 스탠퍼드 감옥 실험(Stanford prison experiment)을 하고서 ‘권위에 대한 복종(obedience to authority) 때문이라고 보았다.’<sup>5)</sup>

“하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저 조직에 충실한 아이히만에게 히틀러가 독일 (우파) 시민을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렸어도 유대인에게 하듯이 별 거리낌 없이 이를 수행했을까. 왜 백인 어린이는 때리지도 못하는 신부가 남미의 어린이는 별다른 죄책감이 없이 죽였는가. 학살이 있기 전에 반드시,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자신들과 구분하고 그들을 배제하고 타자화/악마화하는 혐오 언어(hate speech)가 동원된다.”<sup>6)</sup> 서양 제국의 남미 정복 시대에 백인들은 유색인을 “하느님을 믿지 않는 짐승이나 악마”로, 히틀러를 비롯한 나찌당의 요인(要人)들은 유대인을 “유럽정신을 훼손하고 예수를 죽인, 절멸시켜야 할 빨갱이 반기독교도”로, 르완다의 후투족은 투치족을 “바퀴벌레”로, 관동대지진 때 일본인은 조선인을 ‘우물에 독을 탄 폭도’로 매도하는 혐오언어를 소문이나 미디어를 매개로 퍼트렸고, 학살은 그 후에 진행되었다.

그러기에 집단학살의 근본 원인은 동일성이다. ‘평범한 악’보다, ‘권위에 대한 복종’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동일성에서 비롯된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자주 행해지는 아시아인에 대한 테러, 미투 운동 이후 한국에서 젊은 남성들의 여성혐오 현상에서 잘 파악할 수 있듯, 인간은 동일성에 포획되면, ‘유색인, 이교도, 빨갱이, 장애인, 여성’ 등으로 타자를 상징하고 이를 배제함으로써 동일성을 강화한다. 이들은 타자화한 자들을 배척하고 폭력을 가함으로써 권력, 집단 내의 지지와 일체감,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안정을 얻고 자신의 사고와 행위를 정당화한다.<sup>7)</sup>

‘자아의 이상(ego ideal)으로서 타자’는 정체성 형성의 바탕이다. 이는 한마

5) 스탠리 밀그램, 정태연 옮김, 『권위에 대한 복종』(에코리브르, 2009), 30~64면.

6) 이도흠, 「동아시아 문학에서 타자의 재현과 타자성의 구현」, 『한국언어문화』 제73집(한국언어문화학회, 2020), 221~222면.

7) ‘동일성의 대립자로서 타자’는 위의 글 221~222면과 이도흠, 『인류의 위기에 대한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자음과 모음, 2015), 145~160면을 요약함.

다로 말해 '닳고 싶은 남'이다. 생후 16개월 미만의 상상계(the imaginary)에 있는 아기는 자신이 엄마의 일부분인 줄 알다가 거울에 비춘 대상인 자기 모습을 보면서 조각난 몸의 고뇌에서 하나의 전체성으로 자신을 통일시키며, 자신의 몸과 거울 속의 자신,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웃는 것-타자의 인정-을 통해 내면세계와 주위 세계와의 관계를 정립하여 동일화를 이룬다. 곧 아기는 엄마의 남근이 되고자 하는 상상을 포기하고 아빠, 아빠 뒤에 있는 상징과 그 상징으로 이루어진 사회질서와 규약, 윤리와 법을 수용하게 된다. 아기는 '아버지의 이름(the-name-of-the-father)'을 받아들이며 상상계를 떠나 상징계(the symbolic)로 진입하고 언어로 이루어진 텍스트들, 도덕과 윤리,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며 주체를 형성한다. 아기는 자신의 이름과 위상을 인식하고 언어활동의 세계, 문명과 법의 세계로 들어가며, 자신이 동일시하는 투사된 이미지로서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를 물으며 타자를 욕망하며 주체를 형성하고 타자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충족감을 느낀다. "욕망은 욕망을 위한 욕망, 대타자의 욕망, 다시 말해, 법에 종속된 욕망이다."<sup>8)</sup> 아이가 부모의 욕망대로 공부를 잘하는 자아를 구성할 때 부모의 칭찬이라는 인정을 받는 데서 잘 나타나듯,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삼을 때 타인의 인정을 받아 주체의 동일성을 확보한다. 아이는 공부를 잘하여 부모로부터 칭찬과 지지를 받는 대신 놀이, 게임, 야동 보기, 수음 등에서 오는 쥘이상스를 절제하거나 유보해야 한다. 이렇듯 욕망은 법과 규율, 칭찬 등 상징으로 이루어진 질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기표들로 이루어진 대타자의 욕망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고,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sup>9)</sup> 인간은 거울 속의 대상, 아버지의 이름과 그 너머의 상징과 타자들을 욕망하며, 특정의 타자를 자아의 이상으로 상징적으로 동일시하며 주체를 형성한다. 그러기에 주체의 형성은 소외적이다.<sup>10)</sup>

8) J. Lacan, *Écrits*, (tr.) Bruce Fink,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6, p.723.

9) *ibid.*, p.430.

‘대대적(待對的) 자아로서 타자’는 주와 객,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 동일성에 포획된 주체를 지양하고 이를 대대(待對)의 원리로 아우른 것이다. 데리다는 “만일 타자성 자체가 동일자 ‘속’에 이미 들어 있지 않다면, ‘속’이라는 낱말의 의미가 확실히 드러내는 포섭의 의미와 더불어, 어떻게 동일자의 유희가 일어날 수 있을까?”<sup>11)</sup>라고 묻는 동시에 “타자는 자아임으로써만, 즉 어떤 면에서 나와 동일자가 됨으로써만 절대적으로 타자인 것이다.”<sup>12)</sup>라고 답한다.

들뢰즈가 볼 때 개념 안의 동일성, 술어 안의 대립, 판단 안의 유비, 지각 안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개념적 차이는 결국 동일성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차이는 이웃하는 닳은 종(種)들로부터 그 종들을 포섭하는 유(類)의 동일성으로 이행하도록 해준다. 유적 차이와 종적 차이들은 재현 안에서 공모 관계를 맺는다. 이는 그것들이 어떤 면에서 똑같은 본성을 갖기 때문이 아니다. 유는 종적 차이를 통해서만 외부로부터 확정지을 수 있을 뿐이다.”<sup>13)</sup> “유비(類比)는 판단의 본질이지만, 판단의 유비는 개념의 동일성과 유비적이다.”<sup>14)</sup> 때문에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동일성으로 귀환하지 않는 ‘차이 그 자체’에 주목한다. “차이 자체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차이로 감성과 초월적 경험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 차이는 파국을 언명하는 상태로까지 진전되어야만 반성적 이기를 멈출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실제의 개념을 되찾는다.”<sup>15)</sup>

레비나스는 타자성(alterity)에 주목한다. 레비나스가 볼 때, 타자란 동일성과 대립적인 개념도, 동일성의 주체가 소유하는 대상도 아니다. 내가 나의 관점에서 타자를 이해하고 소유한다는 자체가 폭력이다. 타자란 주체가 영원

10) 이상 이상적 자아에 대한 기술은 이도훈, 앞의 책, 573~578면을 요약함.

11) Jacques Derrida, *Writing and Difference*, tr. Alan B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pp.126~127.

12) *Writing and Difference*, p.127.

13) Gille Deleuze, *Difference and Repetition*, tr. Paul Patton(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34.

14) *Difference and Repetition*, p.33.

15) *Difference and Repetition*, pp.34~35.

히 해석할 수도, 이해할 수도, 동일성에 포섭하여 담아낼 수도 없는 것이다. 유토피아처럼, 궁극적 진리처럼, 사랑하는 님처럼 끊임없이 그를 향하여 다가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향해 모든 것을 던지고 달려가지만 그럴수록 갈증이 더 커지는 그런 것이다. “인간이란 만날 때마다 이 만남 자체를 상대방에게 늘 표현하는 유일한 존재다.”<sup>16)</sup> 만나서 얼굴을 대할 때 두 사람은 인간관계에 들어간다.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얼굴을 바라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순간 타자 속에 진실로 신이 현존한다. 나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나는 신의 음성을 듣는다. 이는 은유가 아니다.”<sup>17)</sup> 나로서는 온전하게 사유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타자와 얼굴을 마주하고서 끊임없이 그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반복할 때, 그의 나약한 얼굴을 보며 무한을 향한 초월을 할 때 우리는 신의 음성을 듣는다.

대대(待對)는 생성적으로 대립물을 내 안에 모시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다. 서양의 주류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이 세계를 이데아/그림자, 주체/대상, 현상/본질, 내용/형식, 물질/정신, 말/글 등 A or not-A의 이분법으로 바라보았고, ‘이데아인 동시에 그림자,’ ‘주체인 동시에 대상’ 식으로 ‘A and not-A’는 모순으로 간주하였다. 우리 또한 어두우면 밤, 밝으면 낮이라 한다. 것처럼 이분법적 모순율이 서양의 주류 철학과 논리의 바탕이었다. 하지만, 실제 세계는 ‘A and not-A’이다. 보통 환하면 낮이라 하지만, 낮 12시라 하더라도 12시에서 0.00001초도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는 극점만이 낮인 것이며, 1분만 지났다 하더라도 그만큼 밤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하루의 모든 시간은 낮인 동시에 밤이다. 이처럼 실제 세계는 A이거나 not-A인 것이 아니라 A인 동시에 not-A, 곧 퍼지(fuzzy)이다.

대대는 형식에서는 퍼지와 유사하지만, 실질에서는 생성적이다. 내가 팔을 펴는 것이 양이고 팔을 구부리는 것이 음이라면, 팔을 펴는 동작 중에 구부리

16) E. Levinas, *On Thinking-of-the-Other*, (tr). Michael B. Smith and Barbara Harsha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p.7.

17) *On Thinking-of-the-Other*, p.110.



려는 마음이나 기운이 작용한다. 이에 팔을 최대한으로 펴면 다시 구부리게 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팔이 정지상태일 때는 펴려는 성질과 구부리려는 성질 가운데 한 가지만 나타나지만, 펴 안에서 구부림이 작용하고 구부림 안에 펴이 작용해야 팔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 파란 태극 안에 빨간 동그라미인 순양(純陽)이 있고, 빨간 태극 안에 파란 동그라미인 순음(純陰)이 있기에 서로 대립하면서 변화하고 서로를 생성시켜 준다.

대대적 자아는 타인을 자기 안에 모시고 섬기고 반성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타자를 내 안에 품어서 하나로 어우러지거나 타자로부터 성찰을 하며 주체를 형성한다. 타자와 나 사이에 끊임없이 소통과 되먹임이 행해진다. “모든 중생이 아프다면, 나 역시 아프다.”<sup>18)</sup>라고 말한 유마경의 가르침처럼, 대대적 자아는 타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만큼 아파한다. 대대적 자아는 원효의 변동어이(辨同於異)론으로부터 추출한 ‘눈부처-주체’이기도 하다.<sup>19)</sup>

‘낮선 남으로서 타자’는 나와 생김새, 가치관, 세계관, 이데올로기, 문화 양식, 아비투스<sup>20)</sup> 등이 달라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다. 인간은 낮선 것, 다름에

18) 『大正藏』, 第14冊, No.0475, 『維摩詰所說經』, 第2卷, 0544b20면. : “... 一切衆生病, 是故我病”

19) 눈부처란 상대방의 눈동자에 맺힌 내 모습을 가리킨다. 첫째, 눈부처를 바라보는 순간에 너와 나의 대립은 무너진다. 눈부처-차이는 ‘주/객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대대(待對)의 자아다. 둘째,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하려 간 사람이 상대방의 눈부처를 보면 이를 중지할 것이다. 눈부처는 ‘내 안의 불성(佛性)과 타인 안의 불성의 서로 드러남’이다. 셋째, 공감에 의해 ‘동일성에 포획되거나 환원되지 않는 차이 그 자체’이다. 눈부처-주체는 소극적 자유(freedom from), 적극적 자유(freedom to), 대자적 자유(freedom for)를 종합한 주체다. 상세한 설명과 논증은 『인류의 위기에 대한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 173~174면, 249~256면을 참고하기 바람.

20) “아비투스는 실천과 지각을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조화된 구조이기”(빠에르 부르디외의 지음, 최중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새물결, 1995), 281면.)에 “사회적 정체성은 차이를 통해 규정되고 확인된다. 즉 아비투스의 성향 안에는 불가피하게 그 구조 안에서 특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생활조건의 경험에서 잘 드러나듯 여러 조건의 체계의 구조 전체가 각인된다.”(같은 책, 281면.) 예를 들어, 상류층의 사람들이 좋은 만남을 가질 때 와인 바를 찾는 데 반하여 노동자는

대해 이질감을 느끼고 경계를 취하고 자기방어를 행한다. 하지만, 자신이 안전하거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낯선 남에 대해 경계를 풀고 호기심이나 관심을 가지고 다가간다. 이 경우 낯선 남은 대대적 자아로서 타자나 자아의 이상으로 변할 잠재성을 갖는다.

### 3. 가사에 재현된 동일성의 대립자로서 타자

미메시스 이론에서 제시된 것과 달리, “실제 현실(R)과 재현된 현실(R′)은 일치하지 않는다. 기억만이 아니라 기호의 한계, 형식의 매개, 세계관의 투영, 이데올로기의 반영, 권력의 개입, 시간과 기억 투쟁에 의해서 현실은 늘 왜곡되어 재현되기 마련이다. 해석의 과정에서 기호의 한계, 형식의 매개, 세계관의 투영, 이데올로기의 반영, 권력의 개입, 시간과 기억 투쟁에 더하여 읽는 주체가 놓인 맥락과 그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그래서 구체적인 현실 R과 독자가 해석한 현실 R1′, R2′, R3′는 차이가 난다.”<sup>21)</sup>

이런 시각에서 조선조 후기 가사에서 타자가 재현된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sup>22)</sup> 작품이 많다면 전체 작품을 분석하여 유형화하면서 공통점과 차이를 드러내야 하지만, 이 논문에서 다루는 네 작품이 전부이기에 이를 대상으로

선술집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아비투스는 문화적으로 구조화한 습관이며, 이는 구조적이지만 주체가 변경할 수 있다.

- 21) 이도흠, 「역사 현실의 기억과 흔적의 텍스트화 및 해석—화쟁기호학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19집(한국기호학회, 2006), 140~142면을 요약함.
- 22) 조선 후기와 대한제국기 가사에 대해 타자에 주목한 연구는 최현재, 「미국 기행가사 〈海遊歌〉에 나타난 자아인식과 타자인식 고찰」, 『한국언어문학』 제58집(한국언어문학회, 2006), 153~177면; 박애경, 「대한제국기 가사에 나타난 이국 형상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31집(한국고전문학회, 2007), 31~60면; 박수진,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北京〔燕京〕의 재현 양상—〈무자서행록〉과 〈병인연행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68집(한국언어문화학회, 2019), 89~118면 등이 있다.

한다. 먼저 중화질서로 동일성을 구성하고 이 동일성에 포획/포섭되지 않는 서양을 타자화하며 배제하는 것으로 재현한 사례를 보자.

“황낭둥의 필담으로 비밀이 이른말이/근일의 양귀즈 놈 귀국을 침노운운/네 부상셔 즈문으로 몬져급보 하였스니/존형은 아모조록 썰이도라 같지어다/이말 이 어인말고 디경실식 놀라운둥/감격홀사 황낭둥을 무슈히 스투하고/인하여 작 별하니 츠심의 활별이라/도라오며 심각히도 양귀즈놈 통분코나/황성 안을 심각 히도 서양관이 여러히오/쳐쳐의 천주당과 스희편만 하였다며/큰길의 양귀즈들 무상히 왕닌히/눈깔은 움푹하고 코마루는 웃둑히며/머리털은 발간거시 곱실곱 실 양피갓고/귀골은 팔척장신 의복도 고이하다/뜯거슨 무어신지 웃둑흔 전님 꺾고/입은거슨 어이히야 두다리가 핑핑히나/계집년을 불작시면 더구나 흥축히 다/통통하고 커다하년 살깔은 푸루죽죽/머리천의 꺾튼거슬 뒤로길게 느려쁘고/스미좁은 저구리의 류름업는 긴치마을/영벗히여 휘두루고 해적해적 가는고나/삿기놈들 불만하다 스오늑세 먹은거시/답팔답팔 발간머리 식노란 둥근눈깔/원숭이 삿기들과 천연이도 흡스홀사/정녕이 증심이오 사름종즈 아니로다/저러툷 스류요물 침노아국 되단말가”<sup>23)</sup>

위 〈병인 연행가〉의 작자는 홍순학(洪淳學, 1842~1892)이다. 1866(고종 3년, 병인)년 4월에 정사 유후조(柳厚祚) 부사 서당보(徐堂輔) 서장관 홍순학이 진하사은 겸 주청사로 다녀올 때 지은 가사다.<sup>24)</sup> 작품 전체를 보면 아직 화이론(華夷論)에서 벗어나지 못한 24살의 서장관이 처음 겪는 충격과 경이를 진솔하게 즉물적으로 묘사한 작품이 강하다.

〈병인연행가〉 텍스트를 보면, 홍순학은 연경(북경)에서 태상소경(太常少卿) 정공주 등 여러 청나라의 관료를 만난다. 그 중 한 사람이 병부(兵部)의 낭중(郎中) 자리에 있었던 황운곡이다. 황운곡은 작자에게 필담을 통하여 서양이 조선도 침공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준다. 이 가사가 창작되던 시점은 1차 아편전쟁(1840~1842년)과 2차 아편전쟁(1856~1860년)이 끝난 직후

23) 임기중, 「병인연행가」,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2005. (www.krpia.co.kr 활용함.)

24) 같은 글.

다. 중국과 조선 모두 중국의 천하관이 붕괴 되는 충격과 서양의 무력에 의한 침공의 공포에 있던 때다. 이 정보를 들은 작자가 황운곡에게 사례를 하였음은 홍순학이 이 정보를 진실로 믿고 고맙게 여겼음을 전제한다.

그 후 그는 북경에 여러 서양관과 천주교당이 있는 것을 생각하며 거리에 서도 흔하게 돌아다니는 서양인들을 만난다. 서양인을 양귀자(洋鬼子), 곧 '서양 귀신 자식'으로, 천주교를 사악한 사상을 뜻하는 사학(邪學)으로 표현한다. 서양인의 형상에 대한 묘사를 보면 더욱 타자화하고 있다. 눈은 움푹 꺼지고 콧마루는 우뚝하고, 머리털은 붉은 곱슬머리로 양가죽 같으며 키는 팔척 장신이다. 남성들의 의복을 볼작시면, 전립처럼 생긴 증절모를 쓰고 두 다리에 팽팽한 바지를 입었다. 여성들은 더욱 흉측하여, 똥똥하고 커다란 체구에 살갗은 푸르죽죽하고 머리에는 장옷 같은 것을 길게 늘어트려 쓰고 소매 좁은 저고리에 주름이 없는 긴 치마를 입고 엉버티어 팔을 크게 휘두르며 휘적휘적 걸어간다. 그 자식들은 더욱 불만하다. 사오륙 세에 이른 것이 다 팔다 팔 빨간 머리에 셋노랑고 둥그런 눈을 하여 원숭이 새끼들과 흡사하다.

이처럼 홍순학은 서양인을 '침노아국(侵擄我國)할 사류요물(邪類妖物)'로 간주하며 철저히 배척하고 있다. 서양인의 다름에 대해 '흉측,' '사악,' '요사' 등의 감정이 담긴 용어를 사용하며 배제의 논리로 언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작자는 "정녕 짐승이지 사람 종자가 아니로다"라며 서양인을 사람에서조차 제외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홍순학이 아직 중화의 질서 안에서 중국에 복속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갖는 소중화(小中華)를 표방하는 동일성에 간혀 있어 중화 질서 밖의 사람과 문화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중국 중심의 천하관과 소중화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내재한다. 이는 '중화 대 서양=문명 대 야만'의 이분법을 구성한다. 작품에 면면히 흐르는 것은 작자의 고루한 화이관(華夷觀)이다. 다른 하나는 서양에 대한 공포다. 텍스트를 보면 작자의 서양에 대한 지식은 아주 일천하다. 천하

의 중심이던 중국이 아편 전쟁에서 패배한 직후의 맥락에서 서양이 조선까지 침공할 것이라는 정보로 인하여 작자의 두려움은 더욱 증대하였다. 서양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천하의 중심이라 여기던 중국을 굴복시킨 서양이 조선도 침범할 것이라는 공포로 인하여 작자는 서양인에 대한 편견과 배제를 더욱 심화하였다. 그러기에 역사적으로는 화이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유리창 등에서 본 새로운 문물과 풍습에 대해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중성을 드러내면서도,<sup>25)</sup> 서양에 대한 타자화의 자세를 바꾸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서양의 내면과 본질에 대한 인식과 재현은 없다. 상(相)에 대한 재현으로 그친 체(體)와 용(用)의 재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 4. 가사에 재현된 자아의 이상으로서 타자

서양을 중화 질서에 포섭되지 않는 대립자로 타자화하던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이란 자아의 이상, 곧 조선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델로 재현된다. 19세기 이후, 특히 20세기 초반에 근대화한 서양의 문명에 대한 경이와 찬탄은 여러 텍스트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반접관이 인도하야 여관스쳐 안홀이라/여관비포 둘러보니 굉장하고 화려하다/벽옥석 층계상에 십녀층 화란이요/유리창 분벽상에 비단장을 드리우고/팔선상 비단교위 규모있게 버려놓코/진화초며 가화초를 벽옥분에 심어있고/초인종 전기등은 가지가지 괴이하다/진슈성찬 준비하야 석찬을 지공한다/침상에 휴숙하고, 청신에 소세하니/영네한 남녀하인, 조찬지공 등티로다/(…중략…)/집치레 불작시면 충루고각 운중기라/네모 번듯 백석으로 마광하야 지어내니/연장접옥 화도중에 삼백만호 굉장하며/가가이 철난간에 문문이 화초로다/더로상에 박

25) 이동일, 「(병인연행가)에 나타난 서술자의 복합적 시선과 그 의미」, 『어문학보』 제28집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2007), 240면.을 참고함.

석갈고 사이사이 수목이라<sup>26)</sup>

위의 가사는 이종응(李鍾應, 1853~1920)이 지은 유일한 세계기행가사인 <서유견문록>중 한 대목이다. 이종응이 1902년 4월 7일에 영국 에드워드 7세 대관식의 축하사절단의 특명대사 이재학(李載學)의 수행원으로 발탁되어 태평양과 미국을 지나 영국으로 갔다가 지중해와 수에즈 운하를 지나 장장 136일 동안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 8월 20일에 대한제국으로 다시 돌아온 여정을 가사로 기록한 것이다.<sup>27)</sup> 그는 덕흥대원군의 10대손으로 종3품의 벼슬살이를 하였으며, 선진화를 위하여 영어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장손 이우용을 관립 한성의국어학교에 진학시킬 정도로 서구적 근대화를 일상에서도 실천하였다.<sup>28)</sup>

위 인용문은 작자가 런던 버킹검 궁으로 가기 전에 머문 여관을 묘사한 대목이다. 반접관(伴接官)의 인도(引導)에 따라 호텔에 편안하게 머물게 되었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서 호텔을 둘러보니 굉장하고 화려하다. 흰 대리석으로 층계를 꾸미고 10여 층 난간에는 꽃으로 장식을 하였다. 투명하게 보이는 유리로 창을 하였고 색칠을 한 벽에는 비단장막을 드리웠다. 여덟 명의 신선이 앉도록 식탁과 비단을 두른 의자를 규모 있게 진열해 놓았는데 주변에는 진귀한 풀과 아름다운 꽃을 담은 화분으로 장식하였다. 게다가 초인종이 있어서 종을 눌러 하인들을 부를 수 있고 전기등은 스위치만 누르면 환하게 불이 들어와 방을 밝히니 기이할 수밖에 없다. 진수성찬의 저녁을 대접받았

26) <서유견문록>을 보면 “일신에 의복업서 평형을 벗고살지/모양이 녕악하고, 심술이 흉영 흉야/혹귀즈 혹귀즈, 이거시 혹귀즈/동양스람 만나보면 간간히 음히히네”라며 실론에서 만난 흑인에 대해 유럽인은 아니지만, 동일자의 대립자로서 타자로 간주하고 배척하고 있는 대목도 있다. <서유견문록> 전 편은 서양을 자아의 이상으로서 타자로 간주하고 있다.

27) 김원모, 「이종응(李鍾應)의 '서사록(西槎錄)'과 '서유견문록' 해제·자료」, 『동양학』 제32집(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2), 129면 참고함.

28) 김상진, 「<서유견문록>에 나타난 西洋, 그 열망의 공간」, 『한국언어문화』 제43집(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13면과 26면을 참고함.

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맑은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니 영리하고 날랜 하인이 아침을 대접한다. 이 호텔은 버킹검 궁이 있는 런던으로부터 6백리, 시속 60킬로미터로 달리는 기차로 네 시간 거리에 떨어진 소도시에 있는 10여 층의 작은 호텔로 보인다. 그럼에도 작자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이 호텔에 어려 있는 영국 문명에 대해 예찬하고 있다.

중략한 이후의 글은 런던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작자는 경복궁과 달리 하늘 높이 솟은 빌딩에 주목한다. 런던에 늘어난 빌딩을 보니, 네모 모양으로 반듯하게 흰 돌로 깔아서 지어낸 층층이 높은 건물이 구름 속에 솟아 있다. 수직으로 향했던 시선은 곧 수평으로 옮긴다. 담을 맞대고 집들이 이어진 것이 꽃길 중에 삼백만 호나 될 정도로 굉장하다. 집집마다 쇠로 된 난간을 하고 문마다 화초로 장식을 하였다. 그 집 사이로는 박석을 깔 도로가 뚫려있고 사이사이 가로수를 심었다. “1801년에 1백만 명에 달하였던 런던의 인구가 1901년에는 6백만 명에 이르렀다”<sup>29)</sup>라는 기록에 따르면 3백만 호라는 기술이 과장이 아니다. 이렇게 서구 문명에 대한 예찬은, 일본의 문명이든, 미국의 문명이든, 영국의 문명이든 가사 전 편에서 내내 유지된다.

조선조의 지식인층의 서양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과 인식이 이렇게 180도로 전환한 것은 서구 문명의 이기에 대한 접촉 때문으로 추정된다. 앞 장의 홍순학처럼 서양에 배타적인 인사도 문물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다. 양반과 중인을 중심으로 안경, 자명종, 천리경 등 서구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면서 근대문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 “안경과 망원경이라는 광학의 산물은 조선인의 시각을 확대시켜줬고 그것은 인식의 확대 내지는 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하였다. 보는 것이 달라지자 생각하는 것도 변했던 것이다. 인식은 자아와 타자의 분화를 촉진시켜 내며 구지식 체제의 틀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 … 기계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는 서양문물에 대한 정도로

29) Lee Jackson, *Dirty Old London: The Victorian Fight against Filth*(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14), p.304.

이어졌다.”<sup>30)</sup>

게다가 1902년이던 이미 많은 서구의 문물이 쏟아져 들어온 때다. 자동차는 1903년에야 들여오지만, 1899년에 경인선도 일부 구간이 개통되어 기선과 기차와 같은 근대 서구의 크고 위대한 문물을 경험한 뒤다. 더구나, 기선과 기차는 안경, 자명종, 천리경 등으로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근대의 속도와 풍경을 가져다주었다. 중국을 넘어서는 문명의 경이를 체험한 조선의 양반과 중인들은 차츰 중화 질서에서 벗어나 서구 문명을 동경하게 되었다.

이중응은 서양 문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일본의 서구화한 문명에 대해서도 찬양 일색이다. 이는 <해유가>에서 작자 김한홍이 “불공재천(不共載天) 네 나라나 동양강산(東洋江山) 반갑도다”라고 기술한 것과 대조된다. 김원모는 “을사늑약 3년 전임에도 대한제국 멸망의 모기(暮氣)를 전혀 감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한국 침략에 대한 적대적 항일 문구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일본의 팔목할 만한 근대화 모습을 보고 선망하고 찬양하고 있다.”<sup>31)</sup>라고 지적하고 있다.<sup>32)</sup> 외교관의 신분으로 짧은 기간에 주마간산 격으로 서구 문명을 체험한 탓도 있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작자는 서구 문명에 대한 경탄과 찬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선진화된, 근대화든, 서양을 자아의 이상으로서 타자로 받아들인 이들이 소중화주의 내지 사대주의의 프레임은 유지한 채 그 대상을 중국에서 미국과 유럽, 또는 서구 문명화한 일본으로 바꾼 소치로 보인다.

30) 박영미, 「19세기 조선인의 서구관 -서양 기물의 수용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한문화논집』 제32집(근역한문화회, 2011), 75면.

31) 김원모, 같은 글, 140면.

32) 박노준은 <해유가>와 <서유견문록>을 비교하여 읽으며 양자가 국한혼용체 대 순한글, 우국개세(憂國慨世)와 반일의 태도 대 일본과 서구 문명 예찬, 내면의 치중대 결면만의 묘사 등의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면서 양자를 상보적으로 이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박노준, 「해유가와 서유견문록 견주어 보기」, 『한국언어문화』 제23집(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127~162면.)



## 5. 가사에 재현된 대대적 자아로서 타자

타자는 자아 성찰의 대상이다. 타자를 내 안에 품을 때 주체는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나보다 약한 타자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연민할 때 주체는 대자적 자유를 구현할 수 있다. 후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지만 서양이란 타자를 통해 자신을 성찰한 사례를 다음 가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sup>33)</sup>

“憤<sup>ㅎ</sup>다 乙巳年에 國權墜落 니원일고/領事館 協會部를 無難히 掇廢로다 /憤氣充腸 此跡事을 呼訝할곳 어디런고/不勝憤腸 서름지어 痛歎<sup>ㅎ</sup>고 도라 서서/不日間 束裝<sup>ㅎ</sup>야 米京을 드러갈식/五晝夜 行船하야 米桑港 到着<sup>ㅎ</sup>니 /다른말 다던지고 里數을 詳考<sup>ㅎ</sup>니/布哇는 二萬里요 米京은 萬餘里라/方言도 略通<sup>ㅎ</sup>고 風俗도 디강아라/할일이 바히업서 商業으로 開路<sup>ㅎ</sup>니/士農工商 平等<sup>ㅎ</sup>니/行世<sup>ㅎ</sup>기 從便<sup>ㅎ</sup>고/與受上이 有規<sup>ㅎ</sup>니 賈賣<sup>ㅎ</sup>기 尤好로다/人間에 別天地가 正是此 米國나라/古人的 傳한마리 海中神仙 니사던니/니고즐 뉘가보고 人間에 誤傳닌가/金臺玉閣 數十層은 閻羅府도 不當<sup>ㅎ</sup>고/公平正直 風俗法律 菩薩界도 其然未然/鑿山通道 堙谷架橋 千里大陸 朝夕往還/用鐵爲航 引電爲械 萬里浩洋 無難來往/政府界 도라보니 堯舜世界 여기로다/傳子傳孫 帝王안고 四年式 遞任하니/勿論男女 老小하고/取其人才 任職나라/途路修築 하는法은 廣闊<sup>ㅎ</sup>기 磨鍊하야/馬車火車 通行<sup>ㅎ</sup>니 男負女戴 本無로다/孤兒院 濟衆院에 治療費가 豐厚<sup>ㅎ</sup>니/勿論誰某 街路上에 矜憫病人 永無<sup>ㅎ</sup>고/上中下 各學校에 勸學니 嚴切<sup>ㅎ</sup>니/無論爾我 愚劣<sup>ㅎ</sup>고/全無識을 難見니요/遊逸者를 處罰<sup>ㅎ</sup>니/貧寒人니 本無<sup>ㅎ</sup>고/獎忠節니 極甚<sup>ㅎ</sup>니 愛國誠니 各自로다/實業上을 勸勉<sup>ㅎ</sup>니 加給人足 到處로다/專制政治 不施<sup>ㅎ</sup>니 萬落千村 烟月니요/億兆人民 同等<sup>ㅎ</sup>니 上和下睦 全國나라/(…중략…)/나무나라 求景<sup>ㅎ</sup>고 古國情況 生覺<sup>ㅎ</sup>니/風流는 뒤결지고 鬱懷가 沸騰나라/二千萬 저人事가 長夜日夢 汲汲드러/禮義東方 自稱<sup>ㅎ</sup>고 世界大勢 拒絶<sup>ㅎ</sup>야/與世推福 雖談니나 不墜家聲 固守<sup>ㅎ</sup>야/去舊從新 甚理致지 口以

33) <혜유가>에서도 “處處에 農夫더러 馬모러 밧철가네/異常<sup>ㅎ</sup>다 異常<sup>ㅎ</sup>다 西洋風俗 異常<sup>ㅎ</sup>다”라는 대목을 보면 낯선 남으로서 미국 문명을 바라보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 문명을 묘사하는 대목은 자아의 이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성찰이 있는 것이 <서유견문록>과 가장 차이가 나는 점으로 보아 해당하는 부분을 인용하며 이 범주에 넣었다.

誦而不行하니/滿腔鬱鬱 此所懷을 向何人니 傳說할가”<sup>34)</sup>

위 인용문은 김한홍(金漢弘, 1877~1943)이 1903년 12월부터 1908년 8월까지 일본을 경유하여 하와이와 미국에서 생활하고 얻은 견문을 귀국 이후에 기술한 <해유가(海遊歌)> 중 한 부분이다. 그는 단종 복위에 참여하여 고문 끝에 죽음을 당한 김문기(金文起)의 15대손인 경북 영덕의 선비다. 지방의 일개 평범한 선비에 지나지 않았지만 당시 조정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할 만큼 결기를 지녔다.<sup>35)</sup>

위 인용문에서 작자는 을사늑약에 분개하며 통탄한다. 그러면서 미국 문명과 문화의 우수한 점을 나열한다. 이는 사농공상이 평등하여 행세하기 편한 것, 상법이 있어서 주고받고 매매하기 좋은 것, 수십 층에 이르는 건물, 공평하고 정직한 풍속과 법률, 산을 뚫고 길을 내고, 막힌 골짜기에 다리를 놓고 천리 대륙을 아침저녁으로 오고 가는 것, 철로 배를 만들고 전기를 써서 만리 너른 바다를 무난하게 오고가는 것,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고 대통령을 선출하여 4년씩 집권하는 것,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관리로 임명하는 것, 도로를 광활하게 건설하여 마차와 기차가 통행하게 하여 남부여대를 없앤 것, 고아원이나 병원에 치료비가 풍족한 것, 사람을 가리지 않고 길거리에 측은한 병자가 없는 것, 보통교육을 실시하여 너와 나 사이에 우열이 없고 무식한 자를 보기 어려운 점, 놀고먹는 자를 처벌하여 춥고 가난한 이가 없는 것, 충절을 권장하는 것이 극심하니 각자가 성실하게 애국하는 것, 상공업 등의 실업을 권면하니 도처에 집집마다 먹고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것, 전제정치를 시행하지 않아 수많은 혼란이 태평한 것, 전국의 모든 인민이 평등하여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모두 화목한 것이다. 이처럼, 작자는 단지 물질문명이나 서구 문명의 겉모습에 대한 위대함을 예찬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등 정치제도, 법규, 교

34) 박노준, 『해유가의 세계 인식』, 『한국학보』 제17집(일지사, 1991), 235~237면.

35) 박노준, 같은 글, 194~195면을 참고함.

육, 평등한 문화, 복지제도 등의 장점에 대해서도 찬탄하고 있다.<sup>36)</sup>

“작자는 눈앞에 펼쳐진 (미국 문명의) 정경에 대해 ‘인간(人間)에 별천지(別天地)’, ‘해중신선(海中神仙)’, ‘보살계(菩薩界)’, ‘요순세계(堯舜世界)’ 등의 미사여구를 총동원하여 … 그 특장점만을 드러내어 칭송하고 있다. … 이처럼 ‘상등국(上等國)’인 미국의 문명에 대해 신비화, 이상화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작자의 태도에서 ‘동일화의 원리’에 지배되고 있는 작자의 의식을 감지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것은 곧 서양 중심적 세계관의 발현이자 서양우월주의의 감염이라 할 것이다.”<sup>37)</sup>

이처럼 작자가 서양 우월주의에 경도되어 있지만, 작자는 이에 머물지 않고 조선에 대하여 성찰한다. 작자가 고국 조선을 생각하니 울적한 회포가 끓어오른다. 이천만 조선인들이 긴 잠에 깊이 들어 동방예의지국임을 스스로 칭하며 문명화란 세계 대세를 거부하고 가문의 명성만을 실추시키지 않으려고 고수하여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좇자는 것을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탓이다. 작가가 보는 성찰할 지점은 크게 세 가지—문명화의 대세를 거부한 것, 가문의 명성만을 추구한 것, 개혁을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이다. 최현재의 지적대로 “미국행 여객선에서 만난 백인과의 대화 중에 작자가 ‘생존경쟁(生存競爭)’의 이치와 ‘우승열패(優勝劣敗)’의 도를 거론하면서 … 문명국인 미국을 신비화, 이상화 일변도로 추앙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에서는 더욱 더 사회진화론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sup>38)</sup>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하지만, 작자는 사회진화론자들처럼 문명화하지 못한 점을 사회적으로 열등한 요인 때문이라며 우리의 열등요인을 나열하지 않는다. 돌아와서 경주, 대구 등을 돌며 “대령이남 칠주에 제일승지 잇쌍니라”<sup>39)</sup>라며 이 땅에 대해 자부

36) 이미 박노준은 같은 글, 216~217면에서 만민평등사상, 규칙을 지키는 도덕성과 공평정직한 풍속, 일등 국가로서 눈부신 시설, 민주정치와 막강한 군사력, 훌륭한 사회복지 시설, 현대적 교육제도, 부지런히 일하고 실업을 중히 여기는 풍조, 국민이 애국충절, 간편한 복식, 기계사용의 대중화와 화폐 경제의 원활한 유통 등 열 가지로 정리했다.

37) 최현재, 앞의 글, 166면.

38) 최현재, 같은 글, 170면.

심을 내비치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우리가 뒤져 있는 원인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열등한 요인의 지적보다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이후에 향리에 묻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은 큰 한계다.

작자는 이렇게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서양 문명을 체험하였기에 이의 상(相)만이 아니라 일부나마 체(體)와 용(用)에 대해서도 재현하고 있으며 우리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하지만, 체(體) 중에서도 중요한 프로테스탄티즘, 과학정신, 합리성 등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서양의 근대문명의 어두운 면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도 없다. 이렇게 김한홍이 서구 문명에 대한 예찬과 더불어 성찰한 것은 의분과 결기를 지닌 선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sup>40)</sup>

## 6. 가사에 재현된 낮선 남으로서 타자

마지막으로 배척도, 찬탄도 하지 않은 채 서양을 낮선 남으로 인식한 작품을 보자.

“옥하교 선편길까 회동관 게잇시니/옛적의 조선과이 아라스관 되어세라/이 만여리 밧갓스름 십년식 떼번하니/괴골은 구척장신 환상의 누른터럭/김흔눈의 누른망즈 날칸코가 뉘다하여 /슈십인을 느리보되 기지히 그러히고/가얏이 갓튼 글즈 줄줄이 가로쓰고/스면의 노흔셔칙 중국 글이 티반이라/딛져흔지 거괴스름 중국과 글이 달나/도학이라 흥는거슨 천주학과 방불하다”<sup>41)</sup>

위의 인용문은 <무자서행록(戊子西行錄)> 중 마지막 대목이다. 이는 종사관(從事官)인 김지수(金芝叟, 1787~?)가 1828년에 진하겸사은행(進賀兼

39) 박노준, 앞의 글, 238면.

40)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하여 죽음을 당한 김문기의 15대 손으로 집안 어른이나 자신이 절의를 지키는 선비로 훈육된 것도 한 몫을 하였을 것이다.

41) 임기중, 「5 김지수(金芝叟, 1787~?)의 무자서행록戊子西行錄」, 『조선외교문학집성(연행록) 증보판』, 2017. (www.krpia.co.kr활용함.)

謝恩行)으로 순조 28년 4월 13일부터 같은 해 10월 3일까지 5개월 18일 총 168일간의 일정으로 연경을 다녀와서 쓴 작품이다.<sup>42)</sup>

조선 사신들이 묵던 옥하관(玉河館) 인근의 옥하교 다리의 서쪽 길가에 외국사신을 접대하는 회동관(會同館)이 거기 있으니, 예전에는 조선 사신이 머물던 조선관(朝鮮館)이 러시아 사신이 머무는 아라사관(俄羅斯館)으로 바뀐 것이다. 러시아 사람들은 중국에서 이만 여 리나 떨어진 중화질서 바깥의 사람으로 10년씩 번갈아 머문다. 기골은 아홉 척 장신인데 얼굴이 희고 털은 누르며, 눈은 깊고 눈동자는 노랗고, 코는 날카롭게 높다. 키가 커서 수십 사람을 내려 보되 날날이 그러한다. 러시아 문자를 보면, 개미 같이 생긴 글자를 횡서(橫書)한다. 사면에 놓인 책은 중국 글이 절반인데, 대체로 말하면, 거기 러시아 사람들은 글이 다르다. 그럼에도 주자학은 천주학과 거의 비슷하다.

이처럼 작자는 러시아 사람들의 다름에 주목한다. 외모의 다름, 글자의 다름, 천주학의 다름에 대해 기술한다. 이 다름이 낯선 이질감을 준다. 문명이 앞선 자에 대한 동경과 선망은 보이지 않은 채 다름과 이에 따른 낯설음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갑자기 주자학과 천주학이 서로 거의 비슷하다고 진술한 것은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름 속에서 그래도 같음을 찾으려 한 것이거나 당시 천주학을 처음으로 대했던 선비들처럼 천주학은 잘 모르지만 도(道)를 추구한 점에서 같다고 피상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한 때문일 수도 있다.

낯선 남에 대한 경계나 거리두기는 오래 가지 않는다. 이는 그에 대한 호기심으로, 더 나아가 호의적 감정으로 이어진다. 작자는 러시아인들이 서초와 조선 청심환을 받지 않자 조선 연행사들을 만나면 으레 서초와 청심환을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청나라 인사와 비교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sup>43)</sup> 정시가 되면 비둘기가 나와 울음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명종, 태엽의 힘으로

42) 위의 임기중의 같은 글을 참고하여 기술함.

43) 임기중, 『조선외교문학집성(연행록 편) 증보판』, 2017, 제9장 연행록의 문물의식, 5-4 이색체험. (www.krpia.co.kr 활용함.)

소리가 저절로 나는 자명악(自鳴樂)을 기이하고 공교롭게 생각하고 러시아인 강보록(康保錄)의 기상(氣像)이 좋다고 칭찬하고 있다.

## 7. 타자의 네 양상과 근대성과 관계

이렇게 네 범주로 나누어 서양이란 타자를 만나 가사로 재현한 양상을 분석했다. 그럼, 각각의 재현방식은 근대성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 먼저 근대성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국민국가 건설과 민족주의의 열풍 속에서 내재적 근대성론자들의 해석이 지배했다. 남북한 모두 18~19세기 조선에서 봉건사회의 풍자와 비판, 자본주의의 맹아 등 근대성의 징후들을 찾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서구와 접촉이 없는 개항 이전 조선의 역사에서 서구의 역사적 경험태(經驗態)인 ‘근대’를 찾는 것은 그야말로 난센스에 속한다.”<sup>44)</sup> 라는 지적이 일부 타당하다. 식민지적 근대성론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당시 조선에서 생산된 것들의 40~70%를 수탈하고,<sup>45)</sup> 이에 저항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금, 고문, 학살을 단행한 가혹한 억압과정이었으며, 근본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의 소산이라고 비판할 것만은 아니다.

내재적 근대성론자들, 식민지 근대성론자들 서구의 근대성 기준을 유일한 것으로 상정하고 전자는 이를 조선조 사회에서 찾으려 하였고, 후자는 그에 대한 실증적 논거가 부족하다며 반박하였다. 하지만, 복수의 근대화가 가능하다. 근대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똑같이, 같은 방향과 과정으로, 같은 힘의 크기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근대, 근대성은 근대 프로젝트의 방향에

44) 강명관, 『국문학과 민족 그리고 근대』(소명, 2007), 103~104면.

45) 당시 가장 중요한 산물이던 쌀만 하더라도 1941년 43.1%를 수탈하였다면 1944년에는 63.8%를 수탈하였다. 정태균,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조세정책을 중심으로』(역사비평사, 1996), 61면.

따라, 근대성의 토대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근대를 기획하고 실천한 주체들의 성향과 이들 사이의 권력의 역학관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sup>46)</sup>

공간적 차이에 의한 시간의 배치, 곧 유럽이 선진/근대이고 아시아가 후진/중세라는 점도 실제라기보다 17세기 이후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이 헤게모니를 가진 것에 바탕을 둔 해석의 소산이다. “1820년에 서유럽 전체의 GD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0%, 동유럽이 3.6%였는데, 중국은 이를 훨씬 넘어 32.9%에 달하였다.”<sup>47)</sup> 유럽이 제3세계를 앞서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제3세계를 수탈하여 자본을 축적한 결과다. 유럽에서조차 근대화는 단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3세계를 식민화한 소산이다.

한 문화 안에서도 지배 권력의 정형화와 동일화, 피지배층의 모방, “식민지 권력의 모방적이고 나르시즘적인 요구를 해체하고 그 동일화과정을 전복의 전략 속에 재연류시켜서”<sup>48)</sup> 양가적 공간으로 분절하고 부인(disavowal)을 통해 지배의 과정을 전략적으로 역전시키는 혼성성(hybridity)을 형성한다. “식민성과 근대성은 별개의 원리나 힘이 아니라 식민지 근대성이라는 사태, 혹은 근대 식민지 세계체제라는 하나의 세계의 양 측면으로만 존재한다.”<sup>49)</sup>

46) 이도흠,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의 근대적 세계관 수용 양상과 의미-만해 한용운을 중심으로 단재 신채호와 백암 박은식을 비교하여」, 『한국언어문화』 제27집(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451면을 인용하며 약간 수정함.

47) A. Maddison, “Shares of the Rich and the Rest in the World Economy: Income Divergence Between Nations, 1820-2030,”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Vol.3 No.1. June 2008. pp.75~76.

48)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탈식민주의 문화이론』(소명출판, 2002), 226면.

49) Walter D. Mignolo, *Local histories/global designs: coloniality, subaltern knowledges, and border thinking*(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pp. 49~50.

&lt;표 1&gt; 타자의 네 범주와 근대성의 관계

타자의 양상	타자에 대한 감정	자아의 태도	타자에 대한 태도	근대성에 대한 태도
동일성의 대립자	공포, 불안, 분노	자기 긍정	타자부정(배척, 폭력)	쇄국
자아의 이상	동경, 선망	자기 부정	타자지향(모방, 존경)	개화, 적극 수용
대대적 자아	공감, 연민	자기 긍정과 부정	타자품기(연대, 성찰)	성찰적 수용
낯선 남	이질감/불쾌나 호기심	자기 방어나 다가가기	타자 거리두기나 다가가기	기피나 관심

〈병인연행가〉의 인용문처럼 조선 문화와 이데올로기 등으로 동일성을 확보하고 서양을 동일성의 대립자로서 간주할 경우, 이에 대해 조선인은 공포, 불안,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된다. 서양을 동일성의 대립자로 재현한 담론을 수용하는 조선인들은 자기긍정의 입장에서 조선의 문화와 사상, 이데올로기를 준수하고 타자를 부정하여 서양의 문화, 사상,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는 배척을 하거나 폭력을 행하려 한다. 이들은 서양문화와 서구적 근대화에 대해 쇠국적 자세를 견지하였다.

〈서유견문록〉의 인용문처럼 서양을 자아의 이상으로 간주할 경우, 이에 대해 조선인은 동경과 선망의 감정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서양을 자아의 이상으로 재현한 담론을 수용하는 조선인들은 자기를 부정하고 타자를 지향하여 그를 모방하고 존경하여 타자를 자기화하려 한다. 이들은 유럽중심주의에 빠져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선을 개화시키려 하였다. 더 나아가 그 중 일부는 서양을 일본으로 대체하였으며, 이는 친일과 패권행위를 근대화와 동일화하는 데로 나아갔다.

〈해유가〉의 인용문처럼 서양을 자기 안에 품어 대대적 자아로 간주할 경우, 이에 대해 조선인은 반성의 감정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서양을 대대적 자아로 재현한 담론을 수용하는 조선인들은 자기를 긍정하는 동시에 부정하고 타자를 품어 연대하거나 자신을 성찰하며 주체를 형성한다. 이들은 서양의 문물을 성찰적으로 수용하였다.

〈무자서행록〉의 인용문처럼 서양을 낯선 남으로 여길 경우, 이에 대해 조



선인은 처음에는 이질감을 갖고 거리두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더 만남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호기심과 다가가기로 변화한다. 이렇게 서양을 낯선 남으로 재현한 담론을 수용하는 조선인들은 처음에는 자기방어의 자세를 취하여 타자를 경계하였지만, 접촉이 이어질 경우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갔다. 접촉이 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는 주체와 타자와 관계에 따라 동일성의 대립자로서 자아, 자아의 이상, 대대적 자아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경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서양을 대대적 자아로 간주하고 성찰적으로 서양의 문명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부류의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동일성의 대립자로 간주하는 이들이 헤게모니를 잡아 쇄국정책을 고수하는 바람에 조선조는 퇴행하거나 정체하였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자아의 이상으로 간주하는 이들이 개화와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맞아 서양과 일본을 자아의 이상으로 보는 담론이 헤게모니를 갖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서양과 일본, 문명 개화를 동일화하여 친일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더 나아가 민족을 배반하였다. 이에 서양을 동일성의 대립자로 보는 이들은 의병항쟁과 동학농민전쟁을 수행하였다. 일제의 가혹한 수탈과 침략에 맞서면서 한국인은 민족적 정체성과 이를 정당화하는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점점 단단하게 구성하였으며, 이는 독립운동과 민족국가 수립으로 구현되었다. 후자 가운데 대대적 자아로 서양을 보는 소수의 사람들은 민족적 동일성을 구성하면서도 차이를 인정하며 참다운 근대성의 길을 모색하였다.

## 8. 맺음말

조선조 후기에 조선 사회가 서양이라는 타자를 만나 이를 가사로 재현한 양상과 근대성의 관계에 대해 연구했다. 타자를 동일성의 대립자, 자아의 이상, 대대적 자아, 낯선 남으로 범주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가사 텍스트를 찾아

분석한 후에 양자를 종합하였다.

〈병인연행가〉의 인용문처럼 조선 문화와 이데올로기 등으로 동일성을 확보하고 서양을 동일성의 대립자로서 간주할 경우, 이에 대해 조선인은 공포, 불안,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된다. 서양을 동일성의 대립자로 재현한 담론을 수용하는 조선인들은 자기긍정의 입장에서 조선의 문화와 사상, 이데올로기를 준수하고 타자를 부정하여 서양의 문화, 사상,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는 배척을 하거나 폭력을 행하려 한다. 이들은 서양문화와 서구적 근대화에 대해 왜국적 자세를 견지하였다.

〈서유견문록〉의 인용문처럼 서양을 자아의 이상으로 간주할 경우, 이에 대해 조선인은 동경과 선망의 감정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서양을 자아의 이상으로 재현한 담론을 수용하는 조선인들은 자기를 부정하고 타자를 지향하여 그를 모방하고 존경하여 타자를 자기화하려 한다. 이들은 유럽중심주의에 빠져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선을 개화시키려 하였다. 더 나아가 그 중 일부는 서양을 일본으로 대체하였으며, 이는 친일과 패관행위를 근대화와 동일화하는 데로 나아갔다.

〈해유가〉의 인용문처럼 서양을 자기 안에 품어 대대적 자아로 간주할 경우, 이에 대해 조선인은 반성의 감정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서양을 대대적 자아로 재현한 담론을 수용하는 조선인들은 자기를 긍정하는 동시에 부정하고 타자를 품어 연대하거나 자신을 성찰하며 주체를 형성한다. 이들은 서양의 문물을 성찰적으로 수용하였다.

〈무자서행록〉의 인용문처럼 서양을 낯선 남으로 여길 경우, 이에 대해 조선인은 처음에는 이질감을 갖고 거리두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더 만남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호기심과 다가가기로 변화한다. 이렇게 서양을 낯선 남으로 재현한 담론을 수용하는 조선인들은 처음에는 자기방어의 자세를 취하여 타자를 경계하였지만, 접촉이 이어질 경우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갔다. 접촉이 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는 주체와 타자와 관계에 따라 동일성의 대립자

로서 자아, 자아의 이상, 대대적 자아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경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서양을 대대적 자아로 간주하고 성찰적으로 서양의 문명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부류의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 참·고·문·헌

- 강명관. 『국문학과 민족 그리고 근대』. 소명. 2007.
- 김상진. 「〈서유견문록〉에 나타난 西洋, 그 열망의 공간」, 『한국언어문화』 제4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5~29면.
- 김원모. 「이종응의 '서사록'과 '서유견문록' 해제·자료」, 『동양학』 제32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2, 127~132면.
- 박노준. 「'해유가'의 세계 인식」, 『한국학보』 제17집, 일지사, 1991, 194~239면.
- \_\_\_\_\_. 「'해유가'와 '서유견문록' 견주어 보기」, 『한국언어문화』 제2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127~162면.
- 박수진.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北京〔燕京〕의 재현 양상 -〈무자서행록〉과 〈병인연행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6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9, 89~118면.
- 박애경. 「대한제국기 가사에 나타난 이국 형상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31~60면.
- 박영미. 「19세기 조선인의 서구관 -서양 기물의 수용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제32집, 근역한문학회, 2011, 59~79면.
- 이도흠.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의 근대적 세계관 수용 양상과 의미-만해 한용운을 중심으로 단재 신채호와 백암 박은식을 비교하여」, 『한국언어문화』 제2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451~483면.
- \_\_\_\_\_. 「역사 현실의 기억과 흔적의 텍스트화 및 해석-화쟁기호학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19집, 한국기호학회, 2006, 139~170면.
- \_\_\_\_\_. 「근대성 논의에서 페러다임과 방법론의 혁신 문제- 식민지근대화론과 내재적 근대화론을 넘어 차이(差異)와 이종(異種)의 근대성으로」, 『국어국문학』 제153집, 국어국문학회, 2009, 253~285면.
- \_\_\_\_\_. 『인류의 위기에 대한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 자음과 모음, 2015.
- \_\_\_\_\_. 「동아시아 문학, 새로운 페러다임과 방법론」, 『비교문학』 제77집, 한국비교문학회, 2019, 85~117면.
- \_\_\_\_\_. 「동아시아 문학에서 타자의 재현과 타자성의 구현」, 『한국언어문화』 제7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20, 219~239면.

- 이동일, 「〈병인연행가〉에 나타난 서술자의 복합적 시선과 그 의미」, 『어문학보』 제 28집,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2007, 213~245면.
- 임기중, 「5 김지수(金芝叟, 1787~?)의 무자서행록(戊子西行錄)」, 『조선외교문학집성(연행록) 증보판』, 2017.(www.krpia.co.kr 활용함.)
- \_\_\_\_\_. 「병인연행가」,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2005.(www.krpia.co.kr. 활용함.)
- \_\_\_\_\_. 『조선외교문학집성(연행록 편) 증보판』, 2017. 제9장 연행록의 문물·의식, 5-4 이색체험.(www.krpia.co.kr 활용함.)
- 최현재, 「미국 기행가사 〈海遊歌〉에 나타난 자아인식과 타자인식 고찰」, 『한국언어문학』 제58집, 한국언어학회, 2006, 153~177면.
- 『大正藏』, 第14冊, No.0475, 『維摩詰所說經』, 第2卷.
- 사카이 나오키, 「엮임 없는 국민주의-서양과 아시아라는 이항대립의 역사적 역할에 대하여」, 『일본연구』 제6집,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6, 29~52면.
- 삐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새물결, 1995.
- 스탠리 밀그램, 정태연 옮김, 『권위에 대한 복종』, 에코리브르, 2009.
- 한나 아렌트, 김선욱 옮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2006.
-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소명출판, 2002.
- Deleuze, Gille. *Difference and Repetition*. tr. Paul Patt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 Derrida, Jacques. *Writing and Difference*. tr. Alan B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 Jackson, Lee. *Dirty Old London: The Victorian Fight against Filth*.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14.
- Lacan, J. *Écrits*. (tr.) Bruce Fink.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6.

- Levinas, E. *On Thinking-of-the-Other*. (tr). Michael B. Smith and Barbara Harsha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 Maddison, A. "Shares of the Rich and the Rest in the World Economy: Income Divergence Between Nations. 1820-2030."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Vol.3 No.1. June 2008. pp.67~82.
- Mignolo, Walter. *Local histories/global designs: coloniality, subaltern knowledges, and Border Thinking*.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논문 투고일 : 2021.08.31 심사 완료일 : 2021.09.23 게재 확정일 : 2021.09.30

Abstract

Aspects of Representation of the West as Others and its Relationships with Modernity in *Kasa* in the late Joseon Dynasty

Lee, Do-heum

This study analyzed the aspects and relationship with modernities that Joseon society met with the West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represented it in the *Kasa*. First, the present writer classified the other into four categories: the opposite of identity, the ideals of the ego, the relation of *daedae*(待對) of ego, and the stranger. Then, after analyzing the corresponding *Kasa* texts, both were synthesized.

As in the quotation of *Byeongin-yeonhaeng-ga*, when identity is composed with only Joseon culture and ideology and the West is regarded as the opposite of identity, Koreans have feelings of fear, anxiety, and anger. Koreans who accept the discourse that represents the West as the opposite of identity, observe the culture, thoughts, and ideology of Joseon from the standpoint of self-affirmation, and deny others, rejecting or committing violence against Western culture, thoughts, and ideologies. They maintained an isolationist attitude toward Western culture and modernization.

As in the quotation of *Syeoyu-gyeonmun-rok*, when the West is regarded as the ideal of the self, Koreans have feelings of admiration and envy. Koreans who accept the discourse that represents the West as the ideal of the self, deny themselves and aim for others, imitate and respect them, and try to make others themselves. They fell into Eurocentrism and actively embraced Western culture and tried to enlighten the Joseon dynasty. Furthermore, some of them replaced the West with Japan and identified pro-Japanese and comprador acts with modernization.

As in the quotation of *Haeyu-ga*, when the West is embraced within and regarded as the relation of *daedae* of ego, Koreans will have feelings of reflection. Koreans who accept the discourse that represents the West as the relation of *daedae* of ego affirm and deny themselves, embracing others, solidarity, self-reflection, and forming the subject. They reflectively accepted Western culture.

As in the quotation of *Muja-seohaeng-rok*, when the West is viewed as a stranger, Koreans initially feel alienated and distance themselves from them. However, if more encounters are made, this will change to curiosity and approach. Koreans who accepted the discourse that represents the West as strangers were initially wary of others by adopting a self-defense posture, but if contact continued, they approached with curiosity. If the contact proceeded more continuously,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ther, it was transformed into the opposite of identity, the ideals of the ego, the relation of daedae of ego.

**Keywords**

Modernity, Modernities of Difference, the other, *Byeongin-Yeonhaeng-ga*, *Syeoyu-gyunmun-rok*, *Haeyu-ga*, *Muja-seohaeng-rok*